

[로스쿨 합격기]

담대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최 서 진

- 이화여자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문학문화학과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2기(2020년)



I.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의 개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시는 크게 정량적 요소와 정성적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량 요소는 간단하게 학점, 토익, LEET(법학적성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중 토익의 경우는, 학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해가 갈 수록 자격 요건화(일정 점수 이상 만점 처리 혹은 P/F)되는 추세이기에 세 정량 요소 중에서는 그 중요도가 가장 낮은 편이고, 입시에 진입한다면 되도록 빨리 목표 학교에 맞춘 점수를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점은 당연히 높을 수록 좋지만, 학점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로스쿨 입시에 진입할 수 없는 것은 또 아니므로 본인이 로스쿨 입시를 고민한다면, 학점 때문에 지레 포기하기 보

다는 적어도 LEET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풀어보길 권합니다. 졸업생이 아닌 경우 학점은 지원하는 해의 1학기까지만 반영됩니다.

정성 요소의 경우에는 굉장히 광범위하고 학교마다 평가의 기준이 매우 다르기에 압축해서 이야기하기 힘든 면이 있지만, 대체로 학부에서의 법학사 취득, 여러 전문자격증의 취득 및 업무 경력, 사법시험 1차 이상 합격 경력 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을 준비할 때 스펙이 되는 인턴 경력이나 대외 활동 등은 로스쿨 입시에서 이야기하는 정성 요소와는 거리가 멀고 실제로 별 메리트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비법학사/졸업예정자'로 최종 합격하였기 때문에, 특이한 정성 요소가 있거나 자격

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시다. 다만, 로스쿨 입시에서는 (학교마다 편차는 존재하지만) 나이가 어린 것은 그 자체로 메리트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입시를 준비한다면 본인은 전체 수험생들 중 어린 측에 속하는 것이고, 큰 정성 요소 없이도 무난히 합격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어필할 만한 정성 요소가 없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LEET 응시 인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서는 합격을 위해 필요한 LEET 점수의 커트라인도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로지’ 로스쿨을 위해 다른 자격 시험을 준비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학교를 다니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경우에는, 법학 과목을 이수하면 비슷비슷한 졸업예정자들 사이에서는 나름대로 눈에 띄는 정성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원서를 제출할 때 학교에서 ‘법학 학점 이수 증명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스쿨 인가 학교의 경우는 대체로 학부 법학 수업도 로스쿨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 자교를 지원하신다면 면접 등에서 아는 교수님을 대면하여 상대적으로 편한 마음으로 면접을 볼 수 있다는 간접적인 장점도 있습니다.

II. LEET (7월 중순)

LEET 시험은 로스쿨 입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LEET라는 시험은 ‘언어이해 / 추리논증 /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서 논술은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문제의 표준점수 혹은 백분위를 합친 것을 여러분의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점수는 추후 여러분이 지원할 학교를 정할 때 결정적인 잣대가 됩니다.

학점이나 다른 정성 요소가 아무리 좋아도, LEET 점수가 일정 점수 이상 되지 못하면 지원조차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이해는 긴 지문 10개가 주어지고 동안 지문당 3문제의 총 30문제를 풀어내는 형식입니다. 반면 추리논증은 2시간 동안 40개의 독립된 문제를 풀어내야 합니다. 저 스스로의 경험과 주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대체적으로 추리논증은 공부를 할 수록 점수가 오르고, 언어이해는 단기간에 가파른 상승률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아직 LEET를 제대로 풀어본 적이 없고 올해 바로 입시를 치르지 않는(못하는) 경우라면 올해 LEET를 접수하고 실제로 응시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집에서 풀어보는 점수와 실제 고사장장에서 나온 점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결국 후자가 진짜 내 점수입니다. 또한, 이렇게 시험삼아 보러 가는 경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부를 일절 하지 않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인이 최소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온다는 것이 파악되기 때문이고, 이 점수대는 로스쿨 입시 진입을 고려할 때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LEET 표준점수의 중간값은 105점입니다.

구체적으로 LEET 언어이해와 추리논증의 공부법을 간략히 설명해보자면, 두 과목 모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시험의 횟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풀어서 공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메가로스쿨 강의를 듣는 것이 보통입니다. 제 경우는 언어이해는 점수가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이었기에 언어이해는 인터넷 강의를 전부 다 듣지는 않았고 문제집을 풀다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지문에 한해서 그 부분만 들었습니다. 추리논증만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며 주어진 교재를 풀었습니다. 저는 김우진 강사의 커리큘럼을 기본까지 듣고 이후로는 혼자서 문제를 계속 풀었는데, 개인적으로 LEET 직전 학기 학교를 다니며 시험을 준비해서 스스로 만족할만큼 공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언어이해는 점수가 높았지만, 추리논증은 평균을 조금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LEET 시험 표준점수를 산정할 때 추리논증에 가중치를 두게 되어, 원점수(두 과목 맞춘 개수의 합)가 동일하더라도 추리논증을 더 잘 본 사람이 표준점수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는 정량 점수를 산정할 때, 추리논증에 가중치를 한 번 더 주기도 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인적으로는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둘을 1:1로 공부하기보다는 추리논증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어이해는 문제 풀이가 바로바로 점수 상승으로 이어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평소에 독서 습관을 들여서 어떤 텍스트든 많이 읽어 보는 것이 결과적으로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

니다. 메가로스쿨 등 여러 추천 도서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책은 빠르게 읽히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조금 쉽고 재미있는 책이라도 본인이 독해력을 기른다는 생각으로 꾸준히 많이 읽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겠지만, LEET 시험에서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멘탈 관리입니다. 공부를 하는 만큼 점수가 곧바로 오르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기도 더욱 쉽고, 의욕이 꺾이기도 쉽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나 압박감을 잘 조절하고 본인을 통제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시험에서 큰 역량이 됩니다. 3~4월 이후가 되면 메가로스쿨과 법률저널 등에서 격주로 자체 성적표가 나오는 모의고사를 신청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점수가 나오는 사설 모의고사는 하나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외부 모의고사를 신청하게 되면 실제 LEET 고사장으로 사용되는 건물, 교실에서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점수에 연연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면 시뮬레이션의 목적으로는 추천합니다.

시험이 가까워질수록 공부할 것은 줄어가고, 더이상 뭘 해야할지 막막한 순간들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판에 기출문제들과 오답만 다시 보면서 당일에 볼 간략한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또 시험 당일을 머릿속으로 계속 상상하고, 여러 사소한 변수들(입을 옷, 시계 필기도구, 점심 식사부터 시작해서 감독관이 OMR을 미리 마킹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두었습니다. 만약 청심환이나 수면유도제

등을 먹어야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시험 2~3 주 전부터 시험해보며 양을 조절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 시험 전날 새벽에 긴장때문에 급체를 해서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전날 밤에 마음 먹은 대로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기에 적어도 시험 전전날은 설령 늦잠을 자더라도 최대한 많이 자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Ⅲ. 지원할 학교의 선택

LEET 시험을 치른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학교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지원할 학교를 빠르게 결정할수록 자기소개서 및 면접을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로스쿨은 가군과 나군에 총 2개의 학교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가로스쿨의 모의 지원 서비스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메가로스쿨과 각 로스쿨에서 주최하는 여러 설명회를 다니며 듣는 각 학교의 입시 기조를 잘 살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로스쿨은 학교마다 중점을 두는 부분이 전부 다릅니다. 정량 점수가 낮아도 면접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 학교도 있고, 학벌을 많이 보는 경우도 있고, 정성 요소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으며, 정량 점수로만 줄을 세우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런 입시 기조는 매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관심있는 학교의 개별 입시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꼭 참석하는 것을 권합니다. 가능하다면 설명회에서 진학 담당자분들이나 교수님들과 직접 상담을 해 보고 주변 로스쿨생들에게 도움을 받는 등 가

능한 한 많은 수단을 동원해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한 입시 기조를 가진 학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본인이 로스쿨의 소위 '네임밸류'에 연연하지 않고 빨리 합격해서 빨리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것인지, 입시를 한 해 더 하더라도 일정 학교 이상을 가고 싶은지 마음을 확실하게 굳혀두고 지원할 학교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를 선택할 때, 본인의 로스쿨 입학 이후의 진로를 고려하여 비슷한 학교들 사이에서도 각 진로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학교를 선택하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Ⅳ. 자기소개서(9월 중)

지원할 학교를 확정하면 그때부터는 자기소개서 및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상대적으로 늦게 시작한 편이었는데, 개인적으로 LEET를 치른 이후, 조금 쉬면서 본인의 서류를 미리 조금씩 준비해두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작성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그것을 증명하는 증빙 자료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원본이 아니라면 원본대조필 도장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시작하기 힘들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활동들의 자료를 되짚어 정리하며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을 구상해보아도 좋습니다.

제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로스쿨 자기소개서의 경우는 여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특별한 스토리나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고 기본에 집중한 내용

이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로스쿨 자기소개서는 내가 얼마나 돋보이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인지, 법학이라는 학문을 잘 따라올 능력이 되는 사람인지를 교수님께 어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제 경우 평이 갈릴 때는 로스쿨에 재학 중인 선배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돌이켜보면 실제로 로스쿨 입시를 경험해본 사람의 조언이 가장 설득력 있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V. 면접(11월 중)

1차 서류 심사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으로 면접이 남아있습니다. 면접은 학교별로 그 방식이 제각각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학교들은 모두 중요한 시사 쟁점 혹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기본권적 논의와 관련된 제시문이 하나 주어지고 찬반 중 한쪽의 입장을 선택하여 답변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제시문의 길이, 준비 시간, 면접 시간, 메모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 등이 학교마다 다르므로 설명회와 면접 기출문제 책을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의 면접을 지성 면접이라 하고, 지성 면접 이외에 지원자 개개인에 대해서 묻는 인성 면접을 추가적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어떤 학교를 지원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아예 없을 수도 있으므로 기출을 보면서 대비하시면 됩니다. 인성 문제는 어느정도 예

측 가능한 문제와 예측하기 힘든 문제가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스스로 리스트를 만들어 각각에 대한 답변 내용을 키워드 위주로 정리하며 시뮬레이션에서 함께 연습하면 충분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어차피 정답은 없으므로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논리적인 근거를 들 수 있는 대처능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저는 총 두 개의 면접스터디를 통해 준비했습니다. 두 스터디 모두 이준일 교수님의 <인권법> 책을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기본적인 배경지식을 익혔으며, 이후에는 지원하는 학교의 기출문제를 돌아가면서 시뮬레이션하고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터디를 잘 구한다면 학원의 도움이 크게 필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주제가 나오든지 써먹을 수 있는 저만의 답변 틀을 만든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VI. 면접 이후, 수험생의 마음가짐

면접까지 치르고 나면 수험생에게는 합격 발표까지 약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합격 발표가 난 이후에도,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경우 그로부터 다시 한 달 이상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학교에 최초 합격을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혹은 예비 번호를 받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추가 합격을 하였는데, 한국의 국어대학교의 경우 예비 번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격 직전까지 마음이 많이 싱숭생숭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내가 뭔가 부족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나와 그 학교가 잘 맞지 않았을 뿐'이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위축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면서 공부 외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순간 순간의 감정들에 저를 내맡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자기 효능감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지난 1년 간 입시를 준비하며 얻은 합격 외의 가장 큰 수확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게 된 것, 더 나아가서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일을 한다는 마음을 단단하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단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입시를 겪는 모든 순간에 스스로를 잡아먹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예비를 받고 추가 합격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무엇도 손에 잘 잡히지 않고, 선행을 시작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수를 결심해야 하는지 마음이 갈팡질팡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에 예비를 받았다면 어차피 추가 합격은 1월 초부터 돌기 시작하므로, 1년 간 고생한 스스로를 위해 짧게라도 여행을 다녀오거나 미뤄두었던 하고 싶은 일들을 맘껏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입시이지만 스스로를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임한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로스쿨 입시를 준비하는 출발선에 선 모든 분들의 건승을 바랍니다.